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정수진 · 최수경

경상대학교 가정교육과
마산대학 뷰티케어학부

The Clothing Image according to Coloration, Tone, and Interval of Checked Pattern in Color Contrast

Su-Jin Jeong and Su-Koung Choi

Dept. of Home Economic Education, Gyeongsang National University
Dept. of Beauty & Care, Masan College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investigate the clothing image according to coloration, tone, and interval of checked pattern in color contrast. The experimental materials developed for this study were a set of stimulus and response scales. The stimuli were 24 color pictures, in which coloration(RB: Red+Blue, YP: Yellow+Purple), tone(light, dull, dark), and interval(0.5 cm, 1.5 cm, 3.5 cm, 5.5 cm) were manipulated. The 7-point scale was used for evaluation of clothing image. Data were obtained from 240 female college students living in Seoul, Gwangju, Jinju, and Masan on May 2010. For data analysis, ANOVA and Duncan-test were used by using SPSS program. Results of this study were as follows.; Clothing image according to coloration, tone, and interval of checked pattern consisted of five dimensions of attractiveness, freshness, appeal, modesty, and activity. Coloration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attractiveness and appeal. Tone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freshness, appeal, and modesty. Interval showed an independent effect on freshness. Also, interaction effects of coloration and tone on appeal were found. Interaction effects of coloration and interval on modesty were found.

Key words: clothing image, checked pattern, color contrast

1. 서 론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미치는 조형요소는 선, 색채, 소재 등 다양한 요소가 있으나 의복에서 소재는 디자인 효과를 극대화시킬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다. 의복에서 소재와 무늬는 분리시켜 생각할 수 없는 만큼 소재의 중요성과 더불어 무늬에 따른 디자인 효과의 중요성도 부각되고 있다(김선미, 정수진, 2008). 무늬에는 선, 형태, 색채라는 디자인 요소가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무늬가 있는 표면은 무늬가 없는 표면에 비해서 시각적으로 강한 이미지를 줄 수 있다.

의복에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무늬 중 하나는 기하학적 무늬이다. 이 기하학적 무늬 중에서도 전통적이면서 지속적으로 변함없는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이 체크무늬이다.

체크무늬는 복잡하고 장식적인 여러 조직보다 단순하고 평범하지만 그 느낌을 변화시킬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인인 선의 간격, 색채, 소재, 조직 변화를 효과적으로 적용시키면 흥미롭

고 다양한 느낌으로 연출할 수 있다(윤정화, 1999).

체크무늬의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들을 보면 여러 가지 무늬 중 하나의 변인으로 간주되어 의복이미지를 평가한 연구들(박영희, 2004; 이소라, 김재숙, 2007; 최은영, 1995)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넥타이에 적용하여 이미지를 분석(최수경 외, 2009)하거나 무채색으로 통제하여 지각자의 성별에 따라 의복이미지를 밝힌 연구(최수경, 2010)도 있다.

체크무늬는 두 가지 색 이상의 배색을 통해서 조화를 이루는 대표적인 형태로 사용되는 디자인보다 색상이나 톤에 의해 변화를 시도하기가 수월하다고 볼 수 있다. 사용되는 색상이나 톤에 따라 다양한 의복이미지의 표현이 가능하다면 무채색만이 아닌 유채색의 배색도 시각적인 형태로 제시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색상 간의 배색에 비하여 조화되기가 다소 어려운 배색이지만 조화가 잘 되었을 경우 미적으로 우수하고 현대적인 감각에 적합하면서 개성적인 아름다움을 표현할 수 있는 색상대비 배색으로 제한하였다. 이렇게 색상대비 배색으로 제한한 체크무늬의 색상과 톤은 연구 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고 시장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그

Corresponding author; Su-Koung Choi
Tel. +82-55-230-1352, Fax. +82-55-230-1352
E-mail: csk5257@hanmail.net

간격을 동일하게 통제하였다. 조사대상자는 선행연구들(박영희, 2004; 최수경, 2010)에서 의복이미지를 평가하는 데 있어서 시각적인 지각 반응을 남자보다 여자가 더 다양하게 나타낸다고 하여 여자대학생으로 한정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결과는 체크 무늬의 색상과 톤, 간격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밝혀서 소비자 감성에 부합하는 패턴 및 의복디자인 기획 시 기초 자료로 활용되었으면 한다.

본 연구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기 위한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색상,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을 알아본다.

둘째,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색상,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로 단서들의 영향을 알아본다.

2. 이론적 배경

2.1. 의복이미지

의복이미지란 의복이 전달해 주는 총체적 느낌으로 이러한 시각적인 이미지는 개인적인 표현수단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므로 이를 객관적인 언어로 평가한 조사결과는 의류마케팅 전략에 사용된다. 의복이미지에 관한 연구는 주로 의복이미지의 구성 요인과 평가차원 등을 밝히고 이를 의류 상품 전략이나 브랜드 포지셔닝에 응용하고자 하는 것을 목적으로 이루어져 왔다(김영인 외, 2000).

장은영, 이선재(1994)에 의하면 의복이미지는 의복 자체의 스타일과 색상, 재질에서 나타나는 이미지로 의복을 착용한 상태에서 착용자가 지닌 특성과의 상호관계에서 지각되는 이미지라고 하였다. 김윤경, 이경희(2001)는 사람들이 어떤 의복을 접했을 때 나타나는 반응이 디자인 요소들의 시각적 특징에 의해 형성되는 전반적인 느낌을 의복이미지라고 하였다.

加雪技(1982)는 블라우스 착용 시 개성과 칼라의 형태 및 색의 효과를 연구하기 위해 15쌍의 형용사를 사용하여 요인 분석한 결과 활동, 역능, 평가 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각각의 요인에 색상, 톤, 칼라의 형태가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山野清一郎 외(1980)는 의복디자인에 있어서 의복의 구성선보다 색채효과가 의복의 이미지 지각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였고, Francois and Evans(1987)는 의복스타일보다 의복명도의 효과가 대인지각 시 의복 착용자에 대해서 긍정적인 인상을 준다고 하였다.

이상에서 의복이미지는 색상, 소재, 스타일 등 다양한 요소의 조합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었다.

2.2. 색상대비에 따른 의복이미지

배색은 두 가지 이상의 색을 서로 조합하여 한 가지 색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효과를 주는 것이다. 특히 패션이미지와 테마를 좀 더 효과적이며 다양하게 표현하기 위해서 색채 배색은 중요한 요소가 된다.

배색의 기본이 되는 것은 먼저 어떠한 효과를 목적으로 하는가에 따라 그에 적절한 배색 기법을 적용하는 것이다(이경희 외, 2002). 배색 기법 중 색상이 다른 두 색을 동시에 인접시켜 놓았을 경우 두 색이 서로의 영향으로 인하여 색상 차가 크게 나는 현상을 색상대비라고 한다. 즉 우리가 쉽게 느낄 수 있는 현상으로 색상대비가 일어나기 위해서는 명확하게 구별되는 색채가 필요하다(한국색채학회, 2002).

김선미, 정수진(2008)의 연구를 보면 물방울무늬의 크기와 면적비 변화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색상대비로 분석한 결과 현시성 차원에서는 청록/빨강 배색의 청록바탕/빨강물방울이, 노랑/파랑 배색의 노랑물방울/파랑바탕이 효과적이며, 매력성 차원에서는 청록바탕/빨강물방울이, 귀염성 차원에서는 색상조합에 따른 이미지 차이가 크게 나타나 노랑/파랑 배색의 물방울무늬가 귀여운 이미지로, 청록/빨강 배색이면 성숙한 이미지로 나타났다. 정수성 차원에서는 면적비가 바탕/물방울로 조합되고 물방울 크기가 너무 크지 않는 경우 정숙하고 안정된 이미지를 주고, 고급성 차원에서는 2.6 cm의 크기를 가진 노랑/파랑 배색의 물방울이 면적비에 관계없이 높게 나타나 전체적으로 색상대비 배색의 조합에 따라 원피스드레스의 이미지 차원 별로 차이를 보였다.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에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문주영, 강경자(2006)는 현시성, 매력성, 귀염성, 안정성, 고급성의 5가지 차원으로 구성되었고, 스트라이프의 색상대비 배색이 현시성, 활동성, 온유성 차원에서 두드러진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그 폭과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어 색상대비 배색이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함을 밝혔다.

강경자, 정수진(2005)은 콘트라스트 배색으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을 연구한 결과 노랑, 초록 저고리의 보색 및 분보색 조화가 되는 치마의 톤 차이에 따라 미국여대생이 한국여대생보다 조화영역의 범위가 넓은 것으로 나타났다.

강경자 외(2005)는 한복배색 시 저고리와 치마에 유사배색과 대비배색으로 조합한 후 톤을 비비드, 라이트, 덜, 다크로 조작하여 한미여대생을 대상으로 조화감을 비교한 결과 한국여대생은 노랑저고리와 빨강치마의 유사배색, 초록저고리와 빨강치마의 대비배색 모두 톤이 비비드인 전통배색 일 äö 가장 조화된다고 한 반면 미국여대생은 일관성있는 평가를 보이지 않아 문화적인 차이를 나타내었다.

이상에서 연구자에 따라 의복스타일은 차이를 보였지만 색상대비를 적용한 배색과 톤은 의복이미지에 유의적인 영향을 미치는 변인임을 알 수 있었다.

2.3. 무늬에 따른 의복이미지

의복에서 무늬는 옷감이 차지하는 의복 전체의 면적일 수도 있고, 비례의 원리에 입각한 면적일 수도 있으며, 또한 강조점으로 극히 일부일 수도 있다(이은영, 2006). 이러한 무늬는 색을 지닌 선, 공간, 형을 포함하여 그 자체로 시각적 효과를 나타내는 패션디자인 요소로서 직물디자인이나 의복디자인 분야

에서 이미지 연구의 대상이 되어왔다(김윤경, 이경희, 2000).

선행연구들을 살펴보면 최은영(1995)은 격자무늬의 경우 무늬가 있을 때 날씬해 보이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격자무늬의 크기가 커질수록 뚱뚱해 보이는 경향이 증가하여 격자의 크기에 따라 체형의 착시현상이 있다고 하였다.

사선 체크무늬의 폭과 색을 유채색과 무채색으로 조합하여 넥타이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최수경 외(2009)의 연구에서는 체크무늬의 색상이 독립적으로 지배적인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나타났고, 폭은 단독으로 작용하기보다 서로 상호작용하여 미치는 영향이 크게 나타나 다른 변인과의 결합에 따라 넥타이 이미지가 달라진다고 하였다.

문영보(1992)는 의복 및 얼굴변인에 따른 인상을 연구한 결과 얼굴, 의복스타일, 의복무늬가 지적 이미지에 영향을 미쳤고, 얼굴보다 의복스타일과 무늬가 더 많은 영향을 미쳤다. 또한 의복무늬의 크기와 바탕 간격, 명암에 따라 인상이 다르게 지각되므로 의복 무늬가 인상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변인임을 보여주었다.

설화정 외(2003)는 명도차, 폭, 배열, 간격을 중심으로 수직 스트라이프에 변화를 주어 소비자 감성과의 관계를 조사한 결과 스트라이프 폭이 좁을 때는 고급스러운, 모던한, 캐주얼한 감성을 나타내었고, 스트라이프 간의 폭이 좁을수록 고급스러운 감성을 나타내어 의미있는 감성 차이를 보였다.

넥타이 색과 무늬에 따른 남성복 이미지를 분석한 강경자, 임지영(1996)의 연구에서 매력성 이미지는 넥타이 무늬가 지배적인 영향을 주었으며, 능력성과 독특성 이미지에 넥타이 색이, 온유성 이미지에 의복색이 두드러진 단서로 나타났다.

이상에서 무늬는 종류, 간격, 색과 그 색의 면적비 등에서 의복이미지가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었다.

3. 연구방법

3.1. 측정도구

3.1.1. 자극물

자극물을 선정하기 위해 2009년 8월-10월 사이 서울 D시장, 대구 S시장, 서울 S백화점, 진주 G백화점, 창원 L백화점에서 사진과 샘플 수집 및 자유기술식의 메모로 조사한 결과 총 216 장의 자극물이 수집되었고, 결과는 <Table 1, 2, 3, 4, 5>와 같다. 먼저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은 다양한 아이টে에서 전개되었

Table 1. 아이টে에 따른 체크무늬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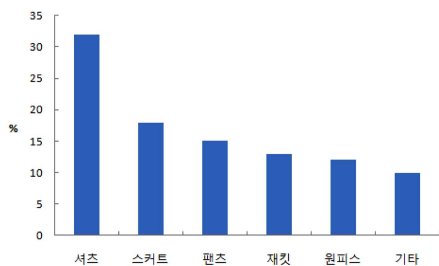


Table 2. 배열에 따른 체크무늬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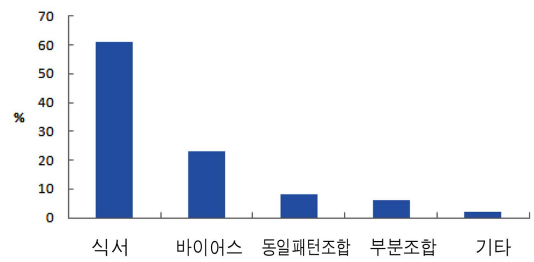


Table 3. 유형에 따른 체크무늬의 분포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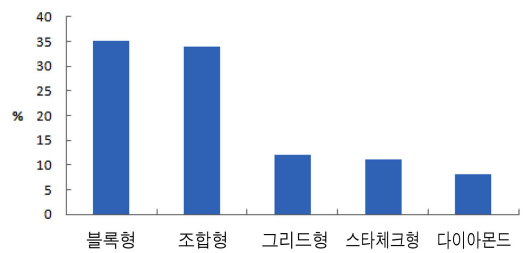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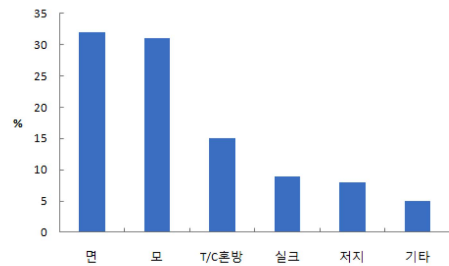


Table 4. 소재에 따른 체크무늬의 분포도



으며, 셔츠, 스커트, 바지의 순으로 많은 분포를 보였다<Table 1>. 체크무늬의 배열을 보면 식서방향, 바이어스 방향, 동일한 체크무늬를 가지고 한 가지 아이টে에 배치를 다르게 한 경우, 부분적으로 조합된 경우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일반적으로 식서방향이 활용되고 있었다. 셔츠와 바지는 주로 식서방향이 대부분을 차지하였고, 스커트와 넥타이는 사선방향으로 바이어스 재단이 보편적으로 활용되었다<Table 2>. 체크무늬의 유형은 최성이(2003)의 연구를 토대로 하여 스타체크형, 블록형, 그리드형, 다이아몬드형, 조합형으로 분류하였다. 여러 가지 배색과 간격이 조합된 버버리체크나 타탄체크 계열인 조합형은 보편적으로 상품화되고 가장 널리 알려진 체크무늬이지만 조사시점에서 체크무늬의 종류는 수직선과 수평선이 모두 동일한 간격을 지닌 블록형 체크무늬가 많이 나타나고 있었다<Table 3>. 체크무늬의 소재는 면직물, 모직물, T/C혼방의 순서로 많았으며<Table 4>, 조직은 평직이 가장 많고, 다음이 능직의 순이었다. 또한 체크무늬의 표현기법은 대부분 선염직물로 구성되어 있었고, 선염직물의 효과를 가진 나염, 패치워크도 있었다<Table 5>. 체크

무늬의 배색은 재질을 다르게 한 단색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 2색, 3색, 4색, 5색, 6색 이상 등으로 배색의 조합도 다양하게 나타났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배색은 모든 색을 한번에 다룰 수가 없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김선미, 정수진, 2008; 문주영, 강경자, 2006)와 의복 및 원단시장의 배색경향을 참고로 빨강과 파랑, 노랑과 보라를 색상대비가 되도록 조합하여 빨강과 파랑을 RB로, 노랑과 보라를 YP로 표기하였다. 이렇게 조합된 배색의 톤은 각각 라이트, 덜, 다크가 되도록 하였다. 체크무늬의 배열은 대부분 셔츠에 사용된 체크무늬가 식서방향임을 고려하여 식서방향으로 설정하였다. 체크무늬의 간격은 시장성과 통제변인으로 설정하기가 용이하게 체크무늬를 동일한 간격으로 조작하여 수직선과 수평선의 직각교차가 일정하게 정비례하는 0.5 cm, 1.5 cm, 3.5 cm, 5.5 cm가 되도록 조작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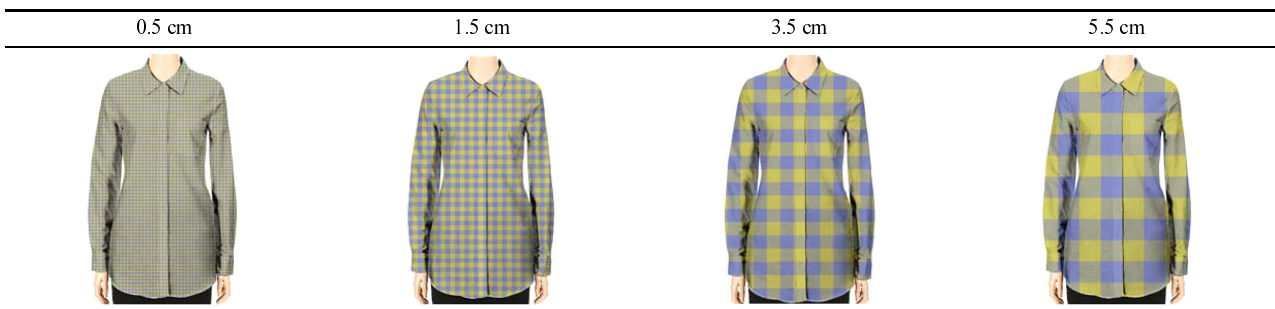
체크무늬에 사용된 색상과 톤은 한국표준색표집에 근거하여 사용하였으며, <Table 6>과 같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은 칼라와 커프스가 있는 기본형의 긴소매로, 트렌드를 반영하면서 체크무늬의 시각적 효과를 위해 전체적으로 약간의 여유를 갖는 캐주얼 셔츠로 선정하였다. 이렇게 선정된 셔츠를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으로 구성된 준거집단과 제4차 한국표준채위예비조사(2003. 5)에 의해 가장 표준채형(키 162 cm, 몸무게 52 kg)에 가까운 마네킹에 착

Table 6. 자극물에 사용된 색상과 톤

Sample	번셀기호	
빨강(Red)	라이트(light)	5R 8/6
	덜(dull)	5R 5/6
	다크(dark)	5R 2/6
노랑(Yellow)	라이트(light)	5Y 8.5/6
	덜(dull)	5Y 5/6
	다크(dark)	5Y 3/6
파랑(Blue)	라이트(light)	5B 8/4
	덜(dull)	5B 5/4
	다크(dark)	5B 2/4
보라(Purple)	라이트(light)	5P 8/4
	덜(dull)	5P 5/4
	다크(dark)	5P 2/4

Table 7. 본 연구에 사용된 자극물



용시켰다. 이 때 자극물에 사용된 하의는 가능한 색의 영향을 배제하면서 착용 빈도가 높은 검정색 바지로 하였으며, 마네킹의 체형, 자세, 배경은 일정하게 통제하였다<Table 7>.

자극물을 제작하기 위해 photoshopCS3프로그램을 사용하였다. 체크무늬는 시장조사를 근거로 하여 평직으로 된 면직물로 하였다. 이렇게 제작된 느낌을 부여하기 위해 평직의 조직 1칸을 1 mm로 하여 무늬를 이루는 기본 단위인 모티브를 구성하였다. 선정된 체크무늬의 배색과 간격을 각각 다르게 하여 구성된 모티브를 define pattern으로 저장한 후 시뮬레이션 작업으로 적당한 음영과 깨끗한 이미지로 조작한 셔츠 자극물 위에 레이어아웃시켰다. 다음으로 한국표준색표집에 준하여 색을 수정하여 최종 자극물을 HP Deskjet F735 프린터로 출력하였다.

3.1.2. 실험설계

본 연구는 독립변인인 배색 2가지(RB, YP), 톤 3가지(라이트, 덜, 다크), 간격 4가지(0.5 cm, 1.5 cm, 3.5 cm, 5.5 cm)의 삼원요인설계로 이루어졌다. 총 24개의 자극물(4x4)을 24개의 실험조합으로 구성하여 하나의 실험조합에 하나의 자극물을 포함시켰다. 각 실험조합 당 피험자는 실험조합별로 24명씩 피험자 간 설계에 의해 무선배치 되었다.

3.1.3. 의복이미지 척도

의복이미지 척도는 의복의 무늬와 배색에 관한 선행연구들(김선미, 정수진, 2008; 문주영, 강경자, 2006; 박영희, 2004; 이소라, 김재숙, 2007; 최수경 외, 2009; 최은영, 1995)에서 사용된 형용사 35쌍을 기준으로 하여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에 의해 체크무늬의 배색과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를 표현하는 데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형용사 28쌍을 선정하였다. 예비조사에서 형용사 3쌍이 탈락하였으며, 최종 요인분석 결과 요인부하치가 낮은 문항과 여러 요인에 걸쳐있는 문항을 제외한 형용사 24쌍이 도출되었다. 자료를 수량화하기 위해 형용사쌍 중간을 기준으로 하여 좌측 극단의 긍정적인 형용사에 7점을, 우측 극단의 부정적인 형용사에 1점을 주어 7단계로 평가하였다.

3.2. 자료수집 및 분석방법

본 연구에서는 전공과 무관한 계열에서 종종 신뢰도가 낮게 나타났던 본 연구자와 전문가 집단(교수와 대학원생)의 경험에

의해 전공 관련 집단으로 통제하였으며, 본 연구자의 편의상 서울, 광주, 진주, 마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여대생으로 한정하였다. 이에 본 연구의 피험자는 서울, 광주, 진주 마산 지역에서 학교를 다니는 전공 관련(의류, 미용, 미술, 디자인계열) 여대생 240명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

본 연구의 자료수집은 2010년 5월에 이루어졌고, 자료분석은 SPSS프로그램을 이용하여 통계처리하였다.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요인분석으로 주성분분석과 Varimax의 직교회전을 사용하였다. 도출된 의복이미지의 요인별로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으로 Cronbach- α 계수를 산출하였다.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의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으로 Duncan-test를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

Table 8.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

요인명	형용사쌍	요인부하량	고유치	전체변량(%)	누적변량(%)	신뢰도계수
매력성	세련된-촌스러운	.862	6.197	25.823	25.823	.953
	매력있는-매력없는	.833				
	보기좋은-보기싫은	.829				
	멋있는-멋없는	.827				
	감각있는-감각없는	.803				
	현대적인-고전적인	.801				
	자연스러운-어색한	.739				
	사교적인-비사교적인	.723				
참신성	산뜻한-칙칙한	.750	4.332	18.052	43.875	.895
	동적인-정적인	.693				
	발랄한-점잖은	.682				
	시원한-답답한	.676				
	귀여운-성숙한	.657				
	신선한-오래된	.629				
	개성있는-개성없는	.623				
	독특한-평범한	.599				
현시성	눈에 띄는-무난한	.875	3.374	14.057	57.931	.890
	강렬한-은은한	.844				
	화려한-수수한	.831				
	대담한-섬세한	.787				
정숙성	차분한-요란한	.882	2.145	8.936	66.867	.861
	단정한-단정하지않은	.864				
활동성	캐주얼한-포멀한	.790	1.801	7.505	74.372	.789
	활동적인-비활동적인	.761				

원을 요인 분석한 결과 <Table 8>과 같다. 그 결과 아이겐 값 1.0이상으로 하여 24개의 형용사 쌍들이 5개의 요인으로 도출되었다. 각 요인의 신뢰도 계수는 .953, .895, .890, .861, .789로 내적일관성있게 나타났다.

요인 1은 세련된-촌스러운, 매력있는-매력없는, 보기좋은-보기싫은, 멋있는-멋없는, 감각있는-감각없는, 현대적인-고전적인, 자연스러운-어색한, 사교적인-비사교적인이 포함된 8개의 형용사 쌍들로 구성되었고, 문주영, 강경자(2006)의 매력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나 매력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2는 산뜻한-칙칙한, 동적인-정적인, 발랄한-점잖은, 시원한-답답한, 귀여운-성숙한, 신선한-오래된, 개성있는-개성없는, 독특한-평범한이 구성된 8개의 형용사쌍들로 나타나 참신성 요인이라고 명명하였다.

요인 3은 눈에 띄는-무난한, 강렬한-은은한, 화려한-수수한, 대담한-섬세한이 포함된 4개의 형용사쌍들로 묶여 현시성 요인으로 명명하였으며, 김선미, 정수진(2008)의 현시성 요인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요인 4는 차분한-요란한, 단정한-단정하지 않은으로 2개의 형용사쌍들이 구성되어 정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요인 5는 캐주얼한-포멀한, 활동적인-비활동적인으로 2개의

Table 9.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매력성		참신성		현시성		정숙성		활동성	
		평균제공합	F값	평균제공합	F값	평균제공합	F값	평균제공합	F값	평균제공합	F값
주 효 과	배색	6.400	4.492*	3.874	3.407	9.263	6.105*	1.268	.423	.011	.000
	톤	6.507	2.284	18.040	7.931***	19.584	6.454**	42.143	7.029**	9.728	1.807
	간격	1.285	.301	12.168	3.566*	8.107	1.781	4.084	.454	8.362	1.035
상호 작용 효과	배색×톤	5.101	1.790	5.423	2.384	12.637	4.165*	.150	.025	7.446	1.383
	배색×간격	4.764	1.115	3.174	.930	9.880	2.171	25.606	2.847*	4.890	.605
	톤×간격	4.617	.540	8.094	1.186	11.808	1.297	15.263	.849	10.574	.655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평균(M)	
배색	RB	2.667		2.898		3.137		3.800		3.175	
	YP	2.401		2.712		2.777		4.082		3.227	
톤	라이트	2.731		3.156 ^b		2.634 ^a		4.400 ^b		3.475	
	덜	2.430		2.691 ^a		2.866 ^a		3.913 ^{ab}		3.081	
	다크	2.446		2.547 ^a		3.457 ^b		3.429 ^a		3.021	
간격	0.5 cm	2.498		2.498 ^a		2.833		3.950		3.233	
	1.5 cm	2.477		2.623 ^{ab}		2.904		3.933		2.908	
	3.5 cm	2.568		3.115 ^b		2.850		3.800		3.560	
	5.5 cm	2.621		3.051 ^{ab}		3.254		4.033		3.158	

*:p<.05 **:p<.01 ***:p<.001 a, b, c : Duncan-test

형용사쌍들이 도출되어 활동성 요인으로 명명하였다.

이상에서 5개의 요인은 매력성, 참신성, 현시성, 정숙성, 활동성 요인으로 나타났으며, 각각의 요인은 점수가 높을수록 앞쪽에 위치한 형용사의 특성과 그 요인의 성향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이렇게 도출된 5개의 요인은 변수로 설정하여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이 의복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고, 의복이미지 차별별로 이들 단서의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하는 데 사용되었다.

4.2.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를 알아본 결과는 <Table 9>와 같으며, 이들 단서의 상호작용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Fig. 1, 2에 나타내었다.

분석결과 독립변인인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은 의복이미지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단서로 작용하였다. 그러나 이들 단서의 영향력은 의복이미지 요인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 이미지 요인별로 설명하고자 한다.

매력성 요인을 <Table 9>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인 배색만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독립변인 간에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을 평균에서 보면 YP보다 RB일 때 더 세련되고 매력있고 보기좋은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따라서 색상대비로 조합된 체크무늬는 그 배색을 어떻게 구성하느냐에 따라 매력적인 이미지에서 차이를 보일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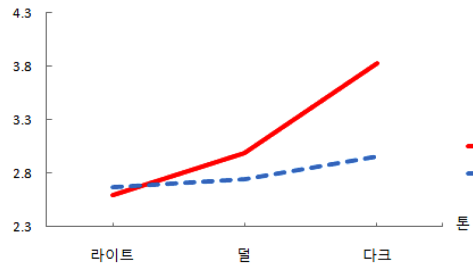


Fig. 1. 현시성 요인에 대한 배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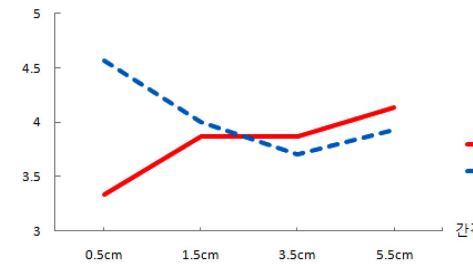


Fig. 2. 정숙성 요인에 대한 배색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

참신성 요인을 <Table 9>에서 살펴보면 톤과 간격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특히 톤은 독립적으로 지배적인 단서로 나타났다. 그러나 독립변인 간에 어떠한 상호작용효과도 일어나지 않았다.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톤을 평균에서 보면 덜과 다크보다 라이트일 때 더 참신한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간격을 평균에서 보면 3.5 cm > 5.5 cm > 1.5 cm > 0.5 cm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3.5 cm 일 때 가장 산뜻하고 동적이고 발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는 체크무늬의 간격이 좁은 것보다 적당히 큰 간격으로 배치해야 참신한 이미지로 표현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현시성 요인을 <Table 9>에서 살펴보면 배색과 톤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냈음은 물론 서로 상호작용하여서도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배색의 평균을 보면 YP보다 RB일 때 더 강렬하고 화려하고 대담한 이미지를 주었다. 본 연구에서는 노랑과 보라의 배색보다 빨강과 파랑의 배색일 때 더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되었지만 선행연구(문주영, 강경자, 2006)에서는 빨강과 청록의 배색보다 노랑과 남색의 배색일 때 더 현시적인 이미지로 나타나 본 연구와 차이를 보였다. 즉 현시적인 이미지에는 하나의 색상이 어떤 색상과 조합되는가에 따라 의복의 시각적인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므로 배색되는 색상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주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낸 톤의 평균을 보면 덜과 라이트보다 다크일 때 더 현시적인 이미지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한복의 톤이 다크일 때 현시적인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한 강경자, 최수경(2005)의 연구결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따라서 의복의 현시적인 이미지는 톤에 의한 영향을 받는다고 볼 수 있다.

현시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1>에서 보면 RB와 YP 배색은 모두 톤이 다크>덜>라이트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일관된 방향성을 보였다. RB인 경우 톤에 따라 지각 차이를 나타내었으나 YP인 경우 톤에 따라 지각 차이를 거의 나타내지 않았다. 따라서 빨강과 파랑으로 배색된 체크무늬 의복으로 현시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려면 톤을 중요한 요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톤이 라이트일 때는 배색이 YP에서, 덜과 다크일 때는 BP에서 높게 나타났으며, 이 때 라이트는 배색 간에 지각 차이를 크게 나타내지 않았다. 그러나 체크무늬의 톤에 따라 배색 간에는 지각 차이를 보여 현시적인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배색과 함께 톤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정숙성 요인을 <Table 9>에서 살펴보면 톤은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으며, 배색과 간격은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 유의한 영향을 나타낸 톤을 평균에서 보면 라이트 >덜>다크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라이트일 때 가장 정숙한 이미지로, 다크일 때 가장 정숙하지 않는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것은 선행연구(최수경, 2010)에서 무채색으로 조합된 체크무늬 중 하양과 검정, 회색과 검정의 조합보다 하양과 회색의 조합이 더 정숙한 이미지로 지각된다고 하여 본 연구결과를 뒷받침하고 있다. 따라서 정숙한 이미지를 연출하기 위해서는 밝은 색상으로 배색된 의복이 효과적임을 알 수 있다.

정숙성 요인에 영향을 미치는 배색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를 <Fig. 2>에서 보면 배색이 RB인 경우 5.5 cm > 3.5 cm >

1.5 cm > 0.5 cm의 순으로 높게 지각된 반면 YP인 경우 0.5 cm > 1.5 cm > 5.5 cm > 3.5 cm의 순으로 높게 나타나 대체로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따라서 빨강과 파랑으로 조합된 체크무늬 의복은 체크무늬의 간격을 크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며, 노랑과 보라로 조합된 체크무늬 의복은 비교적 체크무늬의 간격을 작게 하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볼 수 있다. 간격이 0.5 cm와 1.5 cm일 때는 RB보다 YP에서, 3.5 cm와 5.5 cm일 때는 YP보다 RB에서 높게 나타났다. 특히 0.5 cm일 때는 배색 간에 지각 차이를 크게 나타내어 간격이 0.5 cm이고 배색이 RB일 때 가장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간격이 0.5 cm이고 배색이 YP일 때 가장 단정하지 않고 요란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이와 같이 색상대비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으로 정숙한 이미지를 표현하려면 배색과 톤을 동시에 고려해야 할 것이다.

활동성 요인을 <Table 9>에서 살펴보면 독립변인들은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설정된 독립변인인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은 활동적인 이미지를 지각하는 데 영향을 주는 단서가 아닌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다른 배색방법이나 체크무늬의 배열 및 종류 등을 적용하여 활동적인 이미지를 결정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힐 필요가 있다고 본다.

5. 결 론

본 연구는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 이미지 차원을 알아보고,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밝히는 데 그 목적이 있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차원을 알아보기 위해서 요인 분석한 결과 매력성, 참신성, 현시성, 정숙성, 활동성의 5가지 요인이 의복이미지 차원으로 도출되었다.

둘째,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른 의복이미지 평가에서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를 알아보기 위해서 변량분석과 사후검증을 실시한 결과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은 의복이미지 차원에 따라 차이를 보였다.

매력성 차원은 독립변인 중 배색만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고, 상호작용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주효과에서 배색은 YP보다 RB일 때 더 매력적인 이미지를 나타내어 체크무늬의 배색에 따라 매력적인 이미지는 다르게 지각됨을 알 수 있다.

참신성 차원은 톤과 간격이 주효과에서 독립적으로 유의한 영향을 미쳤고, 상호작용효과는 일어나지 않았다. 주효과에서 톤과 간격은 라이트이고 3.5 cm일 때 가장 참신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현시성 차원은 배색과 톤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나타내었을 뿐만 아니라 상호작용효과에서도 지각단계에서 서로 결

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미쳤다. 주효과에서 배색과 톤은 RB 이고 다크일 때 가장 높게 나타났다. 배색과 톤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톤이 라이트일 때는 배색이 YP에서, 덜과 다크일 때는 BP에서 높게 나타나 톤에 따라 배색은 다소 차이를 나타내었다.

정숙성 차원은 톤이 주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 배색과 간격 간에는 서로 상호작용하여 유의적인 영향을 나타내었다. 주효과에서 톤은 라이트일 때 가장 단정하고 차분한 이미지로 지각되었다. 배색과 간격의 상호작용효과를 보면 간격이 0.5 cm와 1.5 cm일 때는 RB보다 YP에서, 3.5 cm와 5.5 cm 일 때는 YP보다 RB에서 높게 나타나 간격에 따라 배색은 차이를 보였다.

활동성 차원은 독립변인들이 주효과와 상호작용효과에서 유의한 영향을 미치지 않았으므로 앞으로의 연구에서 체크무늬 의복의 활동적인 이미지를 나타내는 데 중요한 변인으로 작용할 수 있는 단서를 밝힐 필요가 있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여 결론을 내리면 색상대비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은 의복이미지 차원에 따라 유의적인 영향이 다르게 나타났다. 색상대비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인 경우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은 의복이미지를 형성하는 영향 요인이 되고, 각각의 의복이미지는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에 따라 지각되는 정도에서 차이를 보였다. 본 연구를 선행연구(최수경, 2010)와 비교해 보면 무채색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이미지는 체크무늬의 간격보다 배색이 두드러진 영향을 미쳤으나 본 연구에서는 의복이미지에 영향을 미치는 체크무늬의 배색, 톤, 간격이 적절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었다. 이상에서 색상대비 체크무늬 의복은 다양한 이미지 창출이 가능하며, 체크무늬의 여러 가지 요소를 가지고 개인이 원하는 의복이미지에 따라 적재적소에 배치한다면 효과적인 이미지 연출에 도움이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제한점은 연구대상자를 여대생으로 한정하여 편의 추출하였고, 자극물 설정을 위한 조사 시기, 체크무늬의 종류와 방향, 배색방법 등을 통제된 상태에서 측정하였기 때문에 체크무늬를 가진 의복을 포괄적으로 이해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또한 본 연구의 변인으로 채택한 체크무늬의 요소 중 활동성 차원에는 영향을 미치는 변인이 나타나지 않아 앞으로 다각적인 측면에서 체크무늬를 활용한 연구가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후속연구에서는 본 연구에 포함시키지 못한 다양한 배색방법과 무늬의 종류, 인구통계적인 변인을 적용하여 연구한다면 보다 의미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참고문헌

강경자, 정수진. (2005). 한복배색의 조화감에 대한 한·미여대생의 지각반응 연구(제4보)-콘트라스트 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류학회지*, 29(6), 825-836.

강경자, 문주영, 임지영. (2005). 치마·저고리의 색상 면적비 변화에 따른 한·미여대생의 조화감 비교 연구-유사색상과 대비배색을 중심으로-.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7(3), 17-26.

강경자, 임지영. (1996). 넥타이의 색과 무늬가 남성복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류학회지*, 20(5), 753-768.

김선미, 정수진. (2008). 색상대비 물방울무늬의 크기와 면적비 변화에 따른 원피스 드레스 착용자의 이미지 연구. *복식*, 58(6), 54-68.

김영인, 추선형, 강죽형. (2000). 이동복의 선호이미지와 선호색채 이미지에 관한 조사연구. *복식*, 50(1), 23-32.

김윤경, 이경희. (2000). 의복무늬의 시각적 감성연구. *한국의류학회지*, 2(6), 861-872.

김윤경, 이경희. (2001). 현대 패션에 나타난 레드이미지. *한국의류산업학회지*, 3(3), 204-210.

문주영, 강경자. (2006). 상의 스트라이프의 방향, 폭, 색상대비가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 *한국의상디자인학회지*, 8(3), 1-15.

문영보. (1992). *의복 및 얼굴변인이 인상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대학원 박사학위논문.

박영희. (2004). 남성복에 나타난 문양의 감성이미지와 선호도. *복식*, 54(4), 113-127.

설화정, 박희숙, 홍경희. (2003). 수직 스트라이프 패턴의 디자인 요소와 감성과의 관계 연구. *충남생활과학연구지*, 16(1), 1-15.

윤정화. (1999). *쇼파용 직물에 관한 연구-체크패턴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디자인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이경희, 김희정, 김유진, 김윤경, 노경혜, 오혜순, 은소영, 주소현. (2002). *패션디자인 발상*. 서울: 교문사, p. 92.

이소라, 김재숙. (2007). 의복의 문양에 따른 의복 및 직물 선호-포카다트, 스트라이프, 체크 문양을 중심으로. *복식문화연구*, 15(2), 193-202.

이은영. (2006). *패션디자인*. 서울: 한국방송통신대학교출판부, p. 217.

장은영, 이선재. (1994). 의류상품 이미지에 의한 의복구매과정 모형 연구. *한국의류학회지*, 18(5), 749-764.

최성이. (2003). *현대패션에 표현된 격자무늬의 조형미 연구*. 홍익대학교 산업미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최수경. (2010). 무채색 체크무늬 셔츠의 시각적 이미지 연구. *한국생활과학회지* 19(2), 399-407.

최수경, 정수진, 성남숙. (2009). 체크패턴의 폭과 색채조합에 따른 넥타이의 감성이미지 연구. *감성과학*, 12(4), 545-556.

최은영. (1995). 무늬의 크기, 배열, 명도대비에 따른 시각적 효과에 관한 연구-격자무늬와 물방울무늬를 중심으로-. *복식*, 24, 193-203.

한국색채학회. (2002). *컬러리스트 이론편*. 서울: 도서출판국제, p. 37.

加雪技. (1982).ブラウスの 衿の イメージに 及ぼす 形態及び 色の 效果.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3(4), 159-164.

山野清一郎, 尹純子, 牧眞理子. (1980). イメージ用語による シルエットの 分類(4). *纖維製品消費科學誌*, 21(8), 341-347.

Francis, S. K. & Evans, P. (1987). Effect of hue, value and style of garment and coloring model on person. *Perceptual and Motor Skill*, 64, 383-390.

(2010년 8월 11일 접수/ 2010년 10월 17일 1차 수정/
2010년 12월 4일 2차 수정/2011년 2월 11일 3차 수정/
2011년 2월 11일 게재확정)